

남도 축구전쟁 '엘로우 더비'

광주·전남 오늘 밤 광주 월드컵 경기장서 컵대회 첫 대결

남도의 축구 전쟁이 시작된다.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 FC와 전남 드래곤즈가 20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컵대회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그동안 전남은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프로축구단이었지만, 올 시즌 광주 FC가 K리그 무대에 뛰어들면서 지역내 라이벌 구도가 갖춰졌다. 홈에서 노란색 유니폼을 사용하는 두 팀의 역사적인 첫 대결은 '엘로우 더비'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전남이 한수 위다. 정해성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내세운 전남은 정규리그에서 3승1무2패를 기록하며 7위를 달리고 있다. 광주는 정규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승(1무4패)의 부진 속에 14위까지 처졌다. 두 팀 모두 정규리그 6경기에서 6골을 넣었지만 실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전남이 3

실점으로 철벽수비를 선보인 것에 반해 경험 부족의 광주는 13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헌납했다. 여기에 전남이 리그컵 무실점으로 1승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광주는 두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2패에 머물고 있다. 전남은 든든한 백업요원들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광주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적수다. 하지만 광주는 시즌 처음으로 안방에서 치르는 컵대회인만큼 심기일전해 그라운드에서 오르겠다는 각오다. 브라질 출신의 용병 중앙파울로가 광주 위기 탈출을 위한 승부사로 나설 전망이다. 지난 16일 전북전에 교체 투입됐던 중앙파울로는 후반 40분 김동섭의 패스를 받아 왼발슛을 날리면서 한국무대 첫 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광주는 이날 전북의 공세에 시달리며 1-6으로 대패를 당했지만 중앙파울로의 현금같은

▲엘로우 더비= 홈에서 노란색 유니폼을 착용하는 광주 FC와 전남 드래곤즈의 상징색을 따 두 팀의 대결을 '엘로우 더비'라고 부르고 있다.

은 골로 간신히 영패를 모면했다. 중앙파울로가 빠른 스피드로 적진을 누비며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광주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전북전을 계기로 선수들이 실점 이유에 대해 깨달았다. 훈련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고 젊은 선수들이라 빠르게 이해하고 있다"며 "전남과의 경기에서 팀 분위기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민들이 무등산 옛길 1구간 잣고개를 오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조광래호 스파링 파트너 "세르비아·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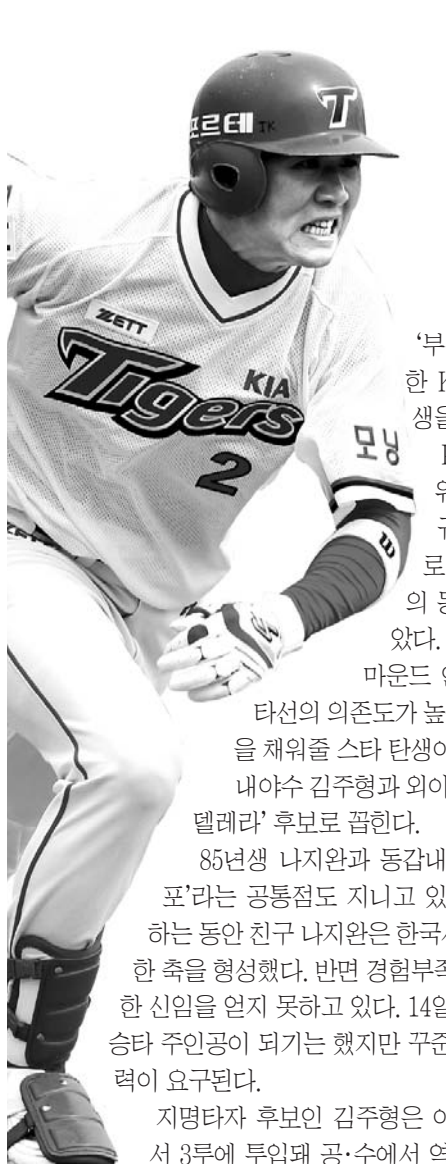
9월 브라질 월드컵 3차예선 대비 6월 평가전

오는 9월 열리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이 '스파링 파트너'로 세르비아와 가나, 일본을 선택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팀 대신 유럽과 아프리카 강호에다 '영원한 맞수' 일본을 평가전 상대로 고른 건 다소 예상 밖이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6월 3일 세르비아, 같은 달 7일 가나를 국내로 초청해 친선경기를 벌인다.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데이인 8월10일에는 일본 삿포로에서 일본과 75번째 한일전을 계획하고

있다. 두 차례(1930년, 1962년)나 월드컵 4강에 올랐던 세르비아와 아프리카의 신강호 가나, 아시아 맹주 자리를 다투는 일본은 FIFA 랭킹이 각각 16위와 15위, 13위로 한국(31위)보다 모두 높다. 한국은 세르비아와 2009년 11월18일 친선경기에서 한 차례 맞붙어 0-1로 졌다. 가나와 상대전적에서도 1승2패로 열세다. 특히 가나와 두 차례 맞붙었던 2006년에는 모두 1-3 완패를 당했다. 일본에는 상대전적 40승22무12패로 앞서 있지만 2000년 들어서는 12차례 맞대결에서 4승6무2패로 팽팽했다. 모두가 지난해 8월 조 감독이 대표팀 지휘

봉을 잡은 후 만나는 강팀이다. 조 감독은 취임 후 12차례 A매치에서 7승 4무1패로 좋은 성적표를 받았으나 이 중 아시아축구연맹(AFC) 산하 나라가 아닌 것은 나이지리아(2-1 승)와 터키(0-0 무승부), 온두라스(4-0 승) 등 3개국뿐이었다. 대표팀의 핵이었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알 힐랄)가 은퇴한 후 국내파들을 실험했던 조 감독은 강팀과 맞대결해 아시아 3차 예선에 나설 베스트 11을 조기에 확정하고 월드컵 본선 경쟁력까지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조 감독은 세르비아, 가나, 일본과의 긴장감 높은 경기를 선수들의 전력과 정신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강팀에 강한 선수들을 조합을 찾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부상병동 KIA "내가 키플레이어"



김주형·신종길 주전 꺾차기 돌아온 김원섭도 부활 기대

'부상'이라는 난관에 봉착한 KIA가 '신데렐라'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득점 1위를 달리던 키플레이어 이용규와 알짜배기 '한방'으로 힘을 실어주던 나지완의 동반부상으로 위기를 맞았다. 마운드 안정화가 진행중인만큼 타선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 두 선수의 공백을 채워줄 스타 탄생이 필요한 이유다. 내야수 김주형과 외야수 신종길이 유력한 '신데렐라' 후보로 꼽힌다. 85년생 나지완과 동갑내기인 김주형은 '우타거포'라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김주형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친구 나지완은 한국시리즈 영웅으로 타선의 한 축을 형성했다. 반면 경험부족의 김주형은 아직 확고한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14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결승타 주인공이 되기는 했지만 꾸준한 타격과 수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지명타자 후보인 김주형은 이범호의 컨디션에 따라 3루에 투입돼 공·수에서 역할을 확대할 기회를 잡게 된다. 만년 유망주의 타이틀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시범경기의 스타 신종길의 활약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뛰어난 기동력으로 주목을 받은 신종길은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통해 화려한 타격까지 선보이며 외야자리 선전에 나섰다. 하지만 시즌에 돌입하자 위력이 사라졌다. 감기몸살로 고생했던 신종길은 타격감을 잃으면서 자신의 특기인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주전 외야수 후보에서 대주자 요원으로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타격감만 살아나면 이용규의 공백을 메워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신종길은 '반쪽자리 선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돌아온 김원섭의 움직임도 팬들의 관심사. 김원섭은 그동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통으로 재활군에 머물렀지만 지난 주말 2군 3경기에 출전해 8타수6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조율했다. KIA는 2009년 개막 일주일도 안돼 이용규가 복사뼈 골절을 당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용규의 갑작스런 부상에 따른 야수진 이동으로 신인 안치홍에게 출전기회가 돌아왔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김원섭은 신인 안치홍의 활약과 함께 KIA는 12년만의 우승으로 2009년을 마무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말엔 무등산 옛길 트레킹 어때요

23일 광주시장배 트레킹 대회... 장원초등서 출발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트레킹대회가 23일 무등산 옛길에서 펼쳐진다. 대회는 23일 오전 8시30분 동구 장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무등산 옛길 1구간에서 진행되며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없고 참가자들에게

는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생활체육트레킹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광주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며 광주트레킹연합회가 주관한다. 광주트레킹연합회 조종석 회장은 "저

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자연 친화적인 녹색생활체육이 각광받고 있다. 트레킹은 자연과 호흡하며 건강뿐 아니라 심신의 안정까지 찾을 수 있는 생활체육이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대회 문의는 광주시생활체육회(062-717-7330)로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라톤 세계 최고 2:03:02

케냐 무타이 보스턴 대회서 작성 강한 뒷바람에 기록 인정 안돼

19일(한국시간) 끝난 제115회 보스턴 마라톤대회 남자부에서 제프리 무타이(30·케냐)가 2시간3분02초라는 비공인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과연 인간이 달릴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코스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지정한 코스 규정에 어긋나고 내리막 경사에 강한 뒷바람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무타이의 기록은 세계기록으로 공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타이는 하일레 게브레셀라시에(38·에티오피아)가 3년 전 베를린 마라톤에서 작성한 세계기록(2시간3분59초)을 57초

나 앞당기면서 인류가 2시간2분대에 진입하는 일이 머지않았음을 알렸다. 1908년 존 하에스(미국)가 2시간55분18초를 기록하며 시작된 인류의 마라톤 신기록은 1952년 제임스 피터스(영국)가 무려 35분이나 줄인 2시간20분43초를 찍으면서 신기록을 맞았다. 15년 후인 1967년에는 데렉 클레이턴(호주)이 2시간19분37초를 찍고 '마의 10분대'를 깨뜨렸다. 2시간5분대에 4분대로 기록이 줄어드는 데 4년이 걸렸고 3분대로 단축하는 데는 5년이 소요됐다. 기록 추이로 봤을 때 2012~2013년께엔 2시간2분대 기록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최고 기록은 일본의 다카오카 도시나리(41)가 2002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

남자 마라톤 세계·한국 기록 비교

순위	세계기록	한국기록
1	하일레 게브레셀라시에 (에티오피아·2008년) 2시간 3분 59초	이봉주 (도쿄마라톤·2000년) 2시간 7분 20초
2	하일레 게브레셀라시에 (에티오피아·2007년) 2시간 4분 26초	이봉주 (로테르담 마라톤·1998년) 2시간 7분 44초
3	단던 키벨 (케냐·2009년) 2시간 4분 27초	김이중 (로테르담 마라톤·1999년) 2시간 7분 49초
4	에마뉘엘 무타이 (케냐·2011년) 2시간 4분 40초	이봉주 (서울국제마라톤·2007년) 2시간 7분 04초
5	패트릭 무소키 (케냐·2010년) 2시간 4분 48초	황영조 (보스톤 마라톤·1994년) 2시간 8분 09초

* 아시아 최고기록은 일본 다카오카 도시나리(41)가 2002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성한 2시간 06분 16초

성한 2시간06분16초에 9년째 묶여 있다. 한국 최고기록은 이봉주가 2000년 도쿄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7분20초로 이에 근접한 선수수가 없는 형편이다. /연합뉴스